

한국 고유의 상징으로 남은 장엄한 건축미

사진집 《종묘》

고유함을 잃어가는 이즈음 종묘(宗廟)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정작 우리는 지난 95년 12월 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야 종묘의 상징적 의미를 인정하게 됐다. 때 맞춰 종묘의 실체를 담아낸 사진집 《종묘》(삼성문화재단)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희미한 인식을 문득 또렷하게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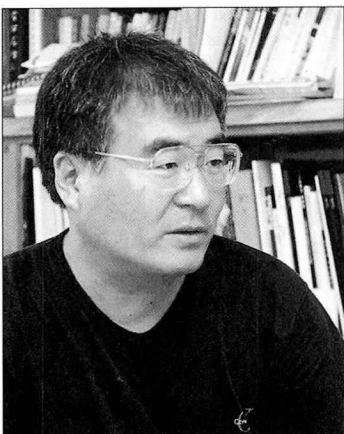
예를 중시하던 국가의 뿌리

〈세계문화유산〉 지정 직후부터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진희)이 기획한 이 책은 단

순한 사진집이라기보다 문화유산으로서 '종묘'에 대한 모든 기록이다. 사진작가 배병우씨가 2년 넘게 장중·담백한 종묘의 구성구석을 담았고,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혜진(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등 전문가들의 해설과 종묘 연표, 건축도면, 배치도 등 관련자료를 집대성했다. 또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문해설(이경희,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도 수록했다. 제작에 기울인 정성은 책의 장정에서부터 드러난다. 두번의 인쇄를 거쳐 고른 흑백 사진도 세련된 색감을 얻었다. 일반 출판사로선 엄두도

사명감처럼 다가온 '종묘'의 기록

《종묘》 사진 찍은 배병우씨



“한국 건축의 복합적인 미학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종묘와 지내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종묘에만 매달려 그 모든 것을 담으려 했던 배병우씨(48, 서울예전교수)는 이 작업이 개인적으로도 행운이었음에 감사한다. 사계절과 햇빛,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종묘의 정제된 표정은 1천롤 이상의 필름 속에 고스란히 들어갔지만, 사진집에는 70컷만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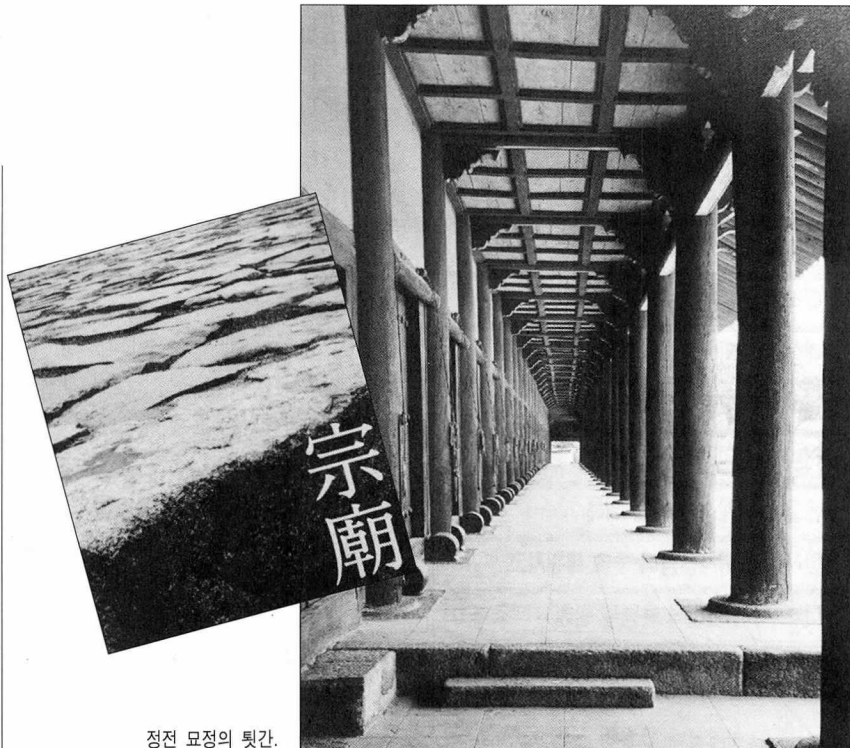
조선 오백년 정신이 담긴 종묘의 기록은 어쩌면 그에게 사명감처럼 다가왔다. 건축가 김원이 20년 전 종묘를 '세계 유일의 건축물'이라 칭송한 글을 읽었을 땐 지나친 국수주의적 표현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종묘가 세계적인 건축물임을 누구보다 열렬

히 강조한다.

“섬세하면서도 단순하고, 장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이 상징적 건축물이 아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비원이나 낙선재, 석과정, 선교장 같은 좋은 전통 건축물의 원형이 조금이라도 덜 훼손됐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는 일은 이제 이 시대의 의무 아닐까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비전전〉(94, 미국 에리조나대) 〈90년대 한국미술〉(96, 일본국립현대미술관) 등 굵직한 해외전시회를 비롯해 올해에도 〈Defrost〉(경주선재미술관), 〈해학과 우리〉(동아갤러리) 그룹전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병우씨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초기에는 주로 고향 일대의 바다를 작품세계로 끌어왔고, 80년대에 '소나무'를 '발견'한 이후 줄곧 소나무 작가로 자리를 굳혀왔다.

'소나무숲'의 영기에 매료됐듯 나무로 지은 우리 전통 건축물의 신기에 빠져들었는데, 건축잡지 《꾸민》을 통해 〈비원〉 〈선교장〉 〈소나무가 있는 집〉 등 이미 전통집에 대한 관심은 꾸준했다. 전국의 마을을 다니며 전통건축에 대한 시각적 해석이 깊어진 까닭에 《종묘》를 단순한 풍경스케치가 아닌 건축공학과 미학의 다큐멘터리로 완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지원〉



정전 묘정의 뒷간.

못낼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는 예를 중시하던 조선왕조 유교사회에서 곧 국가의 뿌리를 뜻한다. 궁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사직, 왼쪽에 종묘를 두었는데, 나라의 흥망은 곧 종묘사직의 존망으로 표현됐다. 조선왕조가 건국 후 시행한 첫 대역사(大役事)도 종묘 건축이었다. 계도는 중국을 따랐으나, 화려한 중국 태묘와는 전혀 다른 고도로 절제된 단아함이 한국 전통 건축미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태조 때 창건된 종묘의 지세(종로구 훈정동)는 남북의 긴 지형이 둘레가 야트막한 구릉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돈다. 자연의 형상에 순응해 배치한 건축물들은 고요하고 편안하다. 종묘는 크게 열아홉칸 규모에 역대 열아홉 왕과 서른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정전(正殿)과 태조의 선대 4조 신위, 정전에서 옮겨온 신위를 모신 영녕전(永寧殿)으로 구성된다.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는 “강조된 부분 없이 똑같은 모양의 지붕이 수십미터나 이어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민주적인' 건축물”이라고 감탄한 정전은 신위가 늘어나면서 몇차례 걸친 증축으로 다른 건물들과 달리 고유한 격식과 공간을 이뤄낸다. 동서 109미터 남북 69미터의 묘정 월대가 펼쳐진 가운데 정문에서부터 신실까지 깔려 있는 넓고 거친 박석은 가운데 신향로, 그 동쪽의 어로(御路), 서쪽의 세자로(世子

路) 세가닥의 길로 나 있다. 정전 일곽은 반북 대칭의 단순구성과 뒷간 처마로 떨어지는 깊은 그림자로 인해 삶과 죽음의 세계가 정지된 시공간의 신성한 힘을 감지케 한다.

정전 건물의 뒤쪽은 꽃나무를 심지 않아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담장 둘레는 선택된 나무만 울창하고, 묘정에서만 공간이 하늘로 통하니 신기가 충만하다. 정전보다 작은 영녕전 역시 둘레담과 묘정, 신실 등의 소우주를 구성해 친밀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제례는 선조 정신의 표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왕실조상을 추모하는 장엄한 제례의식 또한 선조의 정신을 표상하는 종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제례절차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높은 뜻을 본받고 백성에게 넉넉한 복록을 기원하는 마음이 명료하게 담긴다. 1945년 폐지됐던 제례는 69년부터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한차례씩 제사를 올린다. 종묘제례악은 무원들의 춤사위와 아악·당악·향악기를 고루 사용하는 악기편성 등으로 행해진다. 평생 종묘제향의 주악과 일무를 담당했던 성경린(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예능보유자)이 “조선인의 가장 문명화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일갈했듯, 종묘 제례악은 음악과 춤과 예가 신성한 건축물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빛낸다.

— 김지원 기자

삼성문화재단/B4/162면/12만원